

민속
문화



입춘(立春) 새로운 봄의 시작

강 옥
자유기고가

희망의 2009년 새해가 밝았다.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1월에는 다들 마음가짐도 남다르다. 그러나 이맘쯤이면 연초 세웠던 계획들이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다. 2월의 달력을 넘겨보면 입춘(立春)이라는 절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입춘은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있는 24절기 중의 첫 번째 절기로, 음력으로는 정월(正月)의 절기에 해당하며, 태양의 황경(黃經: 춘분점에서부터 황도를 따라 켜 천체의 각도 거리)이 315도에 와 있을 때인 봄으로 접어드는 절후이다.

이날이 지나면 강 얼음도 풀린다는 입춘은 시기적으로는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지만 아직 추위가 강한 때이다. ‘입춘한파’니, ‘입춘 추위 김장독 깬다.’고 간혹 매서운 추위가 몰려와 봄을 시샘하기도 한다.

입춘은 음력으로는 선달에 들기도 하고 정월에 들기도 하며, 정월과 선달에 거듭 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봉춘(再逢春)이라 한다.

입춘 전날이 절분(節分)인데, 철의 마지막이라는 뜻이다. 이 날 밤을 ‘해넘이’라고 부르고, 콩을 방이나 문에 뿌려 마귀를 쫓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입춘을 마치 연초(年初)처럼 본다.

옛 중국 문헌에는 입춘 15일간을 5일씩 3후(候)로 갈라서, ① 동풍이 불어서 언 땅을 녹이고, ② 동면하던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③ 물고기가 얼음 밑을 돌아다닌다고 하였다.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로서, 이 날에는 여러 가지 민속적인 행사가 행해진다. 그 중 하나가 입춘첩(立春帖)을 써 붙이는 일인데, 이것을 춘축(春祝), 입춘축(立春祝)이라고도 한다. 옛날 대궐에서는 설날에 문신(文臣)들이 지어 올린 연상시(延祥詩: 신년축시) 중에서 잘된 것을 선정하여 대궐의 기둥과 난간에다 써 붙였고, 일반 민가와 상점에서도 모두 입춘첩을 붙이고 새봄을 송축했다.

예컨대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등과 같은 좋은 글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한 해의 무사태평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과 더불어 어둡고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었음을 자축하는 뜻이기도 했다. 또 양쪽 대문에 ‘개문만복래’, ‘소지황금출’이라고 써 붙이기도 한다. 그 뜻은 대문을 활짝 열면 만복이 들어오고,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온다’는 뜻의 글인데, 새봄을 반갑게 큰 희망을 갖고 맞으며, 부지런히 일하기에 힘써 부자가 되자는 매우 밝고 성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속담에 ‘홍부 집 기둥에 입춘방’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잠결에 기지개를 켜 양이면 발은 마당 밖으로 나가고, 두 주먹은 벽 밖으로, 엉덩이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 동네사람들에게 걸리적거린다고 궁둥이 불러들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아 대성통곡 하는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 기둥에도 입춘을 맞아 입춘방을 써 붙였으니 격에 맞지 않음을 빗대는 말이다.

예부터 입춘절기가 되면 농가에서는 농사 준비를 했다. 아낙들은 집안 곳곳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남정네들은 겨우내 넣어둔 농기구를 꺼내 손질하며 한 해 농사에 대비했다. 소를 보살피고, 재거름을 부지런히 재워두고, 뽕나무밭에는 오줌을 주고 겨우내 묵었던 뒷간을 퍼서 인분으로 두엄을 만들기도 했다. 바야흐로 바빠지기 시작하는 때인 것이다.

왜냐하면 일년 농사의 시작이 이제부터이기 때문이다. 또 이 날 내리는 비는 만물을 소생시킨다하여 반겼고, 입춘 때 받아둔 물을 부부가 마시고 동침하면 아들을 낳는다 하여 소중히 여겼다.

우리 조상들은 이 날 농가에서 보리뿌리를 뽑아 보고, 그 뿌리의 많고 적음에 따라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보리뿌리점(麥根占)을 쳤다. 여주인이 소복(素服)을 하고 지신(地神)에게 삼배(三拜)를 올리고 보리뿌리를 뽑아 세 가닥이면 풍년, 두 가닥이면 평년, 한 가닥이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또 부녀자들은 오곡을 솥에 넣고 볶을 때 맨 먼저 솥 밖으로 튀어나온 곡식이 그 해에 풍작을 이룬다고 믿었다지만 이제는 다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한편 입춘은 먹을거리도 풍성한 날이었다. 이 날은 입춘절식(立春節食)이라 해서 햇나물 무침을 해먹었다.

햇나물 무침은 경기도 내의 산이 많은 6개의 고을, 즉 양평(陽平), 지평(砥平), 포천(抱川), 가평(加平), 삭녕(朔寧), 연천(連川) 등에서 동충(冬蔥), 멧갓, 승검초 등 햇나물을 눈 밑에서 캐내 임금께 진상하고 궁궐에서 겨자와 함께 무쳐 ‘오신반(五辛盤)’이라 하여 진상한데서 유래한다. 오신반은 시고 매운 생채 요리를 뜻하는 것으로, 새봄의 미각을 돋게 하기엔 더없이 충분했다.

햇나물 무침을 먹는 이유는 겨우내 결핍된 신선한 야채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에서도 이를 본받아 눈 밑에 돌아난 햇나물을 뜯어다 무쳐서 먹는 풍속이 생겼었다고 한다.

입춘에는 지방별로 특색 있는 풍속이 있었다. 제주도에서는 입춘일에 큰 굿을 했는데, 이를 ‘입춘 굿’이라고 한다. 입춘 굿은 무당조직의 우두머리였던 수신방(首神房)이 맡아서 하며, 많은 사람들이 굿을 구경하였다. 이때에 농악대를 앞세우고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걸립(乞粒)을 하고, 상주(上主), 옥황상제, 토신, 오방신(五方神)을 제사하는 의식이 있었다.

반면에 함경도 지방에서 입춘이 되면 나무로 소를 만들어 관아(官衙)로부터 민가(民家)까지 끌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목우놀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옛날 중국에서 흙으로 소를 만들어 내보내던 풍속을 모방한 것으로 농사를 장려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뜻을 지닌 것이다. 🐮

